

# 慶州隍城洞古墳出土 土俑의 服飾史的意味

忠南大學校 家政大學 家政教育學科  
副教授 具 人 숙

## 目 次

- |   |  |
|---|--|
| <p>I. 서 論</p> <p>II. 황성동고분의 성격</p> <p>III. 황성동고분출토 토俑의 형상</p> | <p>IV. 황성동고분출토 토俑의 복식사적 배경</p> <p>1. 신라통일전, 후의 외래요소의 수용</p> <p>2. 신라복식제도의 성립과 변천</p> <p>V. 결 論</p> |
|---|--|

## I. 序 論

1987년 5월 慶州市 隍城洞 542-1소재, 마을에서 말무덤으로 전해지던 墳丘墓에서 人物土俑6點과 기타유물이 출토되었다. 新羅地域에서 출토된 土偶들과는 달리 황성동출토 人物土俑은 당시 인물의 모습과 服飾 등이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어 그 前年 출토된 龍江洞土俑과 함께 新羅服飾의 實狀을 밝혀주는 귀중한 실물자료라고 생각된다.

사실 新羅服飾을 연구하는데는 문헌과 실물자료가 부족하여 유품을 통한 계통적인 복식연구가 불가능하였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統一新羅服飾의 先行研究는 당시의 遺品이 부족하여 異國의 文獻인 隋·唐書 등의 中國史料와 우리나라의 三國史記, 三國遺事에 記錄된 興德王 服飾制度(834年)를 中心으로 研究되어 왔다. 興德王服制는 新羅服飾을 밝히는 귀중한 史料임에 틀림없으나 이것을 뒷받침할 考古學的 資料(服飾遺品)가 不足하여 推測에 지나지 않았던 新羅의 服飾이 慶州 龍江洞古墳에서 채색된 人物土俑 28點이 出土되어<sup>1)</sup> 그 形態를 눈으로 確認할 수 있게 되었다.

隍城洞出土의 土俑은 龍江洞出土의 土俑과 달리 채색되어 있지 않고 表現技法도 그다지 寫實的이 아니나 彫塑樣式은 龍江洞出土의 土俑보다 더 세련

되어 있다. 人物像의 服飾은 龍江洞出土 人物像의 服飾과 다른 樣式, 즉, 龍江洞出土 人物像의 服飾이 中國의 色彩가 강하게 反映되었다고 한다면 隍城洞出土 人物像은 이것과는 다른 性格을 띠고 있어 中國의 影響만이 아니라 어떤 要素가 加味되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隍城洞古墳出土 人物土俑은 龍江洞出土 人物土俑과 더불어 新羅統一前·後의 服飾의 實狀提示는 물론이고 아울러 新羅服飾의 外來的要素의 受容, 新羅化, 日本에의 影響을 밝힐 수 있는 貴重한 實物資料라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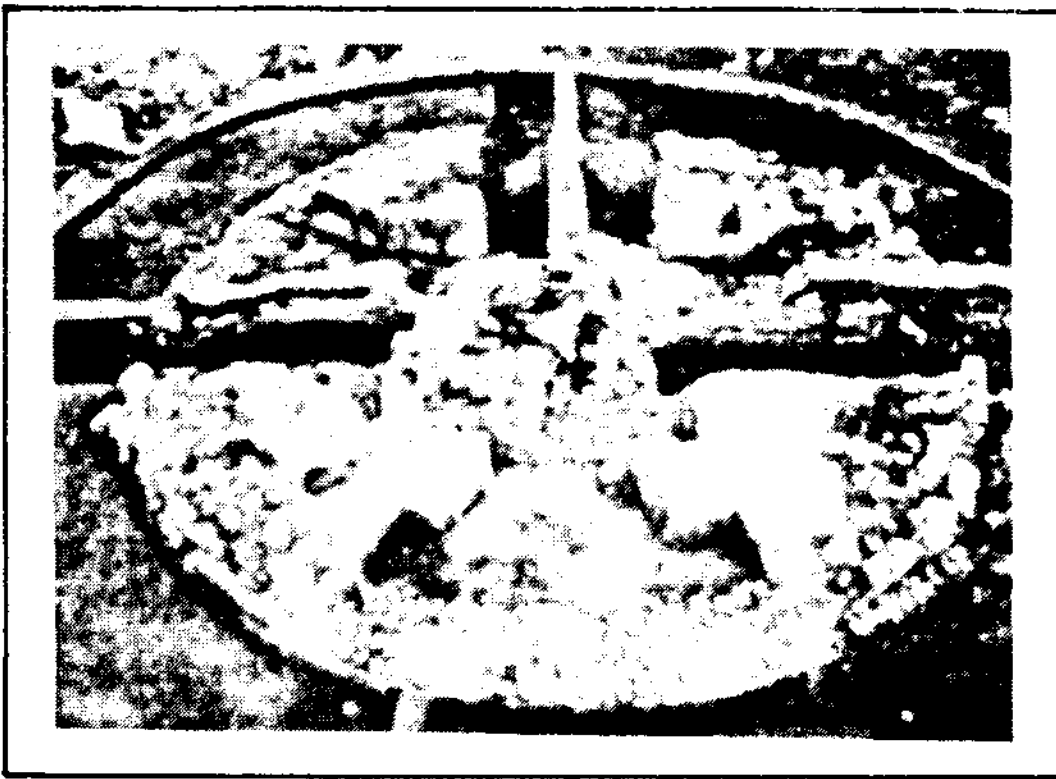
이에 본논문은 지금까지 文獻에 依存하여 推測할 수 밖에 없었던 新羅服飾의 形態를 實物資料로 提示하고 隍城洞出土 人物土俑의 服飾史的 背景을 살펴 보고저 한다.

### 1. 隍城洞古墳의 性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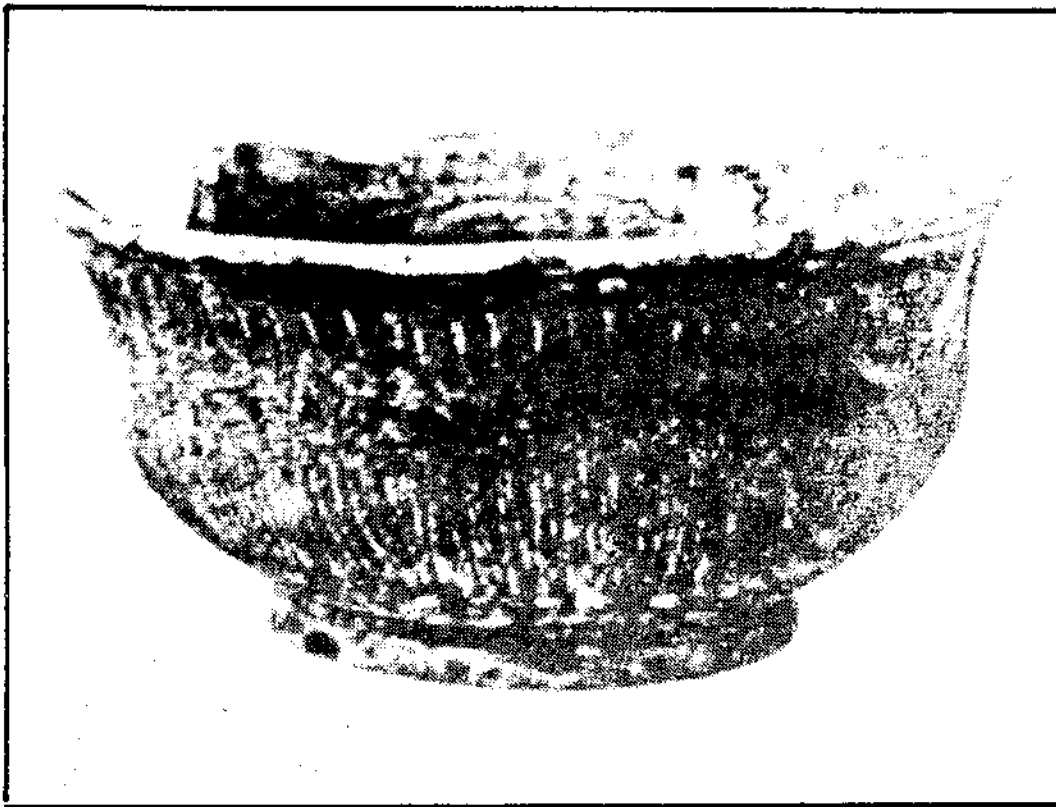
1987年 5月 19日 慶州市 隍城洞 542-1 所在의 「말무덤」으로 口傳되어 오던 墳丘墓 <그림 1>에서 우리나라 古墳(以下 隍城洞古墳이라 稱한다)에서 는 처음으로 수레바퀴와 이를 끌던 소의 모습을 빚은 土俑과 함께 人物土俑6點<그림 4-10>, 馬頭1點 등의 土俑11點과 土器碗<그림 2>, 頭枕, 肩台, 足座片 등이 出土 되었다.

隍城洞古墳發掘略報告書에 의하면<sup>2)</sup> 古墳은 底徑이 14m에 달하는 石室墳으로 古墳의 築造過程을

1) 趙田典(1987), 慶州龍江洞古墳發掘報告書



〈그림 1〉 트랜치를 넣은 隍城洞古墳



〈그림 2〉 隍城洞古墳出土 土器碗

살펴 보면 먼저 古墳의 範圍로 예정한 地域의 넓이 90cm에 달하는 圓周區域에 넷돌로 列을 지어 3~4列을 깔고 난 후 中央部에 石室構築하고 가장 바깥 넷돌 列보다 한줄 안쪽에 大形割石으로 된 護石을 돌리고 그 안쪽에 큰 割石을 채운후 그위로 全體를 粘土層으로 半球形이 되도록 덮고 그 表面에 割石을 섞어 墳丘를 만든 것으로 推定했다. 石室構造는 遺構가 거의 남아 있지 않으나 南北으로 긴 長方形 玄室의 남쪽 동편에 짧은 羨道가 붙은 卍字形 石室이며 屍床은 石室 西壁에 南北方向으로 붙은 單一屍床이다. 慶州地域 平地에서 確認된 石室古墳으로는 龍江洞古墳에 이어 두번째로 조사되었으며 石室墳은 韓半島에서 高句麗가 먼저 採用

하여 남쪽으로 傳播시킨 墓制로 新羅의 首都 慶州에서는 6世紀 前半에 築造되기 시작했다. 新羅의 中央貴族들이 6世紀頃 그들의 원래 墓制였던 積石木槨墳의 築造를 포기하고 石室墳을 채용하기 시작한 것은 法興王(514~530년)의 在位年間의 일이다. 그 築造手法은 積石木槨墳보다 세련된 기술을 요하지만 古墳 각부의 規模와 副葬品은 크게 縮小되고 簿葬化되어 4, 5世紀頃의 天馬塚이나 皇南大塚과 같은 화려한 貴金屬遺物이 없고 人力과 物資動員을 極小化한 것이다. 新羅 中央貴族들의 石室墳 築造契機는 法興王年間 520年の 律令頒布, 527年の 佛教公認 등 일련의 社會改革과 兵部와 上大等과 같은 制度의 設置 등과 連結지어 생각할 수 있다. 특히 佛教의 定着으로 火葬制度가 발달한 이후부터 葬禮가 簡素化되고 副葬品의 數도 크게 줄기 때문이다.

따라서 古墳에서 發掘된 土俑의 服飾은 당시 新羅人의 服飾을 모델로 하여 만들었을 것이므로 인물토용의 出土는 服飾史學界에 던져 주는 意義는 크다 하겠다.

隍城洞古墳의 出土遺物은 土器碗1點이 護石列밖에 묻은 狀態로 出土되었으며 나머지는 原位置에서 出土된 것은 없고 모두 墳丘表面의 교란토내에서 出土되었다. 여기에서 出土된 遺物은 表1과 같다.

〈표 1〉에서 보이는 人物土俑6點의 男·女子像은 얼굴모양, 衣服, 冠帽 등에서 新羅人의 모습을 추측할 수 있고 수레바퀴, 소와 馬頭의 고삐, 가슴걸이, 굴레 등에서 당시의 生活相 및 造形藝術의 水準을 나타내는 중요한 資料로 이것들은 新羅古墳, 彫刻史, 生活史研究에 새로운 契機를 이루게 하였다.

俑은 偶와 같은 것으로 사람의 形을 한 말하자면 人形이다. 人形을 死者와 함께 副葬하는 風俗은 일찌기 우리나라와 中國에서 殉葬이 廢止되면서 나타난 것으로 死者의 靈魂을 위로하기 위해 死後에도 生時와 같은 生活을 한다는 來世觀에 따라 妻妾, 奴婢, 兵士, 官人 등의 人形을 死者와 함께 埋葬하는 것이다. 이것은 殉葬의 連續이며 당시의 來世觀을 反映하고 있다. 副葬方法도 秦代에는

2) 慶州博物館(1988), 慶州隍城洞古墳發掘略報告書, 미간행 동아일보(1987. 6. 12日字)

3) 崔秉鉉(1988), "新羅石室古墳의 編年研究", 崇實史學 第五輯, (崇實大學校史學會), pp.62-65.

〈표 1〉 隍城洞古墳出土 遺物

	遺物名稱	數 量	形 狀	크 기 (cm)
人 物 像	男 子 像	1	完 形	높이 17.8
	男 子 像	1	完 形	높이 18.0
	老 人 頭 像	1	破 損	높이 5.0
	胴 體 部	1	破 損	높이 14.5
	女 子 像	1	完 形	높이 16.5
	胴 體 部	1	破 損	높이 12.2
動 物 像	牛	1	完 形	높이 6.6, 길이 12.2
	馬 頭	1	破 損	높이 8.3
器	車 輪	1	完 形	直徑 10.0
	車 輪	1	完 形	直徑 10.2
	土 器 碗	1	完 形	높이 8.0, 지름 16.0
具	頭 枕 台	1	破 損	幅 18.0, 두께 5.8
	台	1	破 損	幅 18.0, 두께 7.5
	足 座	1	破 損	幅 18.0, 두께 7.5, 길이 53.5
	其 他 石 製 品	4	完 形	21 × 8 × 7 ~ 14 × 9 × 8

墓室에 넣지않고 따로 굴을 파서 묻었으나 唐代에는 俑을 墓室內에 넣었으며 墓室內의 偶의 配置나 넣는 수량 등도 엄격히 정해져 있었다. 그러므로 數量과 服飾 등에 의해서도 被葬者의 身分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唐代의 「大漢原陵祕葬經」에<sup>4)</sup> 나온 明器配置圖〈그림 3〉를 살펴보면 文武官뿐 아니라 婦人, 宮女, 廚房일을 맡았던 人物까지 俑으로 만들어져 배열되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日本의 埴輪은 墓室內에 넣지 않고 墓 밖에 세우며 墓를 守護하는 役割을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찍부터 來世思想이 있어 死後에도 生時와 똑같은 生活을 계속한다는 冥界意識에 따라 그 사람이 永生할 墳墓와 殉葬의 風俗이 重要視되었다.<sup>5)</sup> 따라서 「三國志」에 의하면 東沃沮에서는 墳墓에 쌀을 副葬하였고<sup>6)</sup> 扶餘에서는 ‘殺人殉葬多者百數’와 같이 殉葬의 風俗이 널리 存續되었다.<sup>7)</sup> 이러한 사실은 梁山 夫婦塚에 夫婦外에 3人的

奴婢로 생각되는 者가 殉葬되어 있고, 大邱市 福賢洞 石槨墳에서 被葬者의 주위에 頭蓋骨 5-6개가 發見되고 있어 殉葬이 행하여 졌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sup>8)</sup> 특히 「三國史記」에 의하면<sup>9)</sup> 智證王3年(502)에 이러한 殉葬을 禁하였다는 記錄이 있으므로 우리나라에서도 殉葬의 代用品으로 俑이 만들어 졌으며 新羅地域에서 發見되는 土偶가 그 좋은 例라고 생각된다.

土俑은 粘土를 燒成했던 것으로 木, 石, 金屬으로 제작되기도 했지만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점토를 소성했던 土俑이다. 俑은 偶와 같은 것으로 中國에서는 殷代로부터 土偶가 있었으나 俑은 戰國, 秦, 漢을 거쳐 六朝, 隋, 唐에 이르러 盛行하였으며 材料도 陶製를 비롯하여 綠釉, 褐釉, 黃白釉 등과 加彩, 三彩 등으로 된 훌륭한 俑이 製作되었다.<sup>10)</sup> 특히 唐代에는 三彩釉를 바른 華麗한 三彩俑이 流行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生活方式에 따라 時代

4) 宮川寅雄(1981), 「俑의 歷史와 唐三彩俑의 世界」, 「中國의 三彩陶磁」, (東京: 株式會社大日本繪畫), p.62.

5) 邊太燮(1958), 「韓國古代의 來世思想과 祖上崇拜信仰」 「歷史教育」3, pp.58-61.

6) 「三國志」魏書三十, 東夷傳 東沃沮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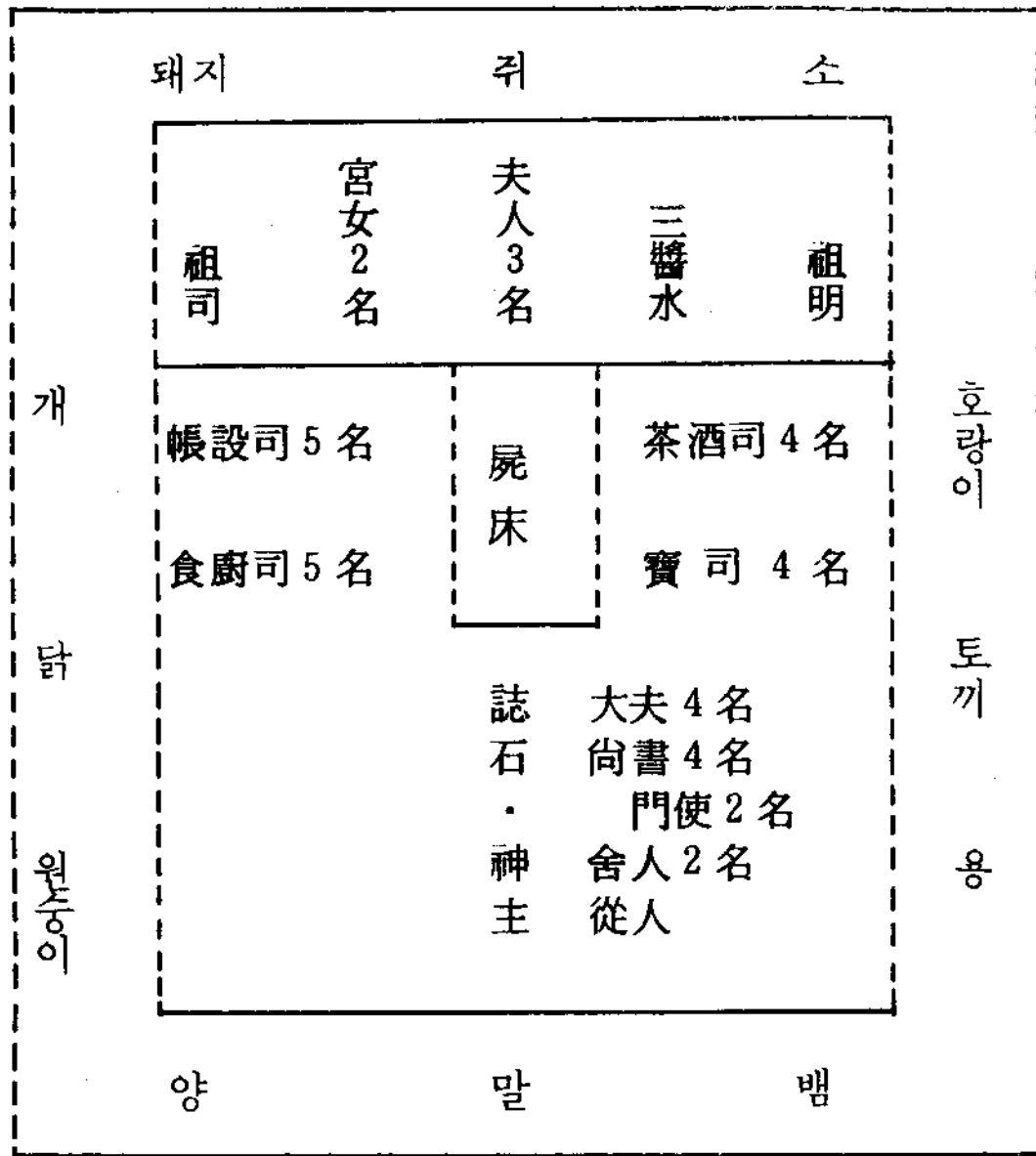
與家皆共一槨, 刻木如生形, 隨死者爲數, 又有瓦金 置米其中, 編縣之於槨戶邊.

7) 「三國志」東夷傳 扶餘條

8) 金元龍(1977), 「韓國考古學概說」, (서울: 一志社), p.175.

9) 「三國史記」, 卷第4, 新羅本紀, 智證麻立干條, 三年春三月 下令禁殉葬 前國王薨則殉以男女五人 至是禁焉

10) 大阪市立博物館編(1978), 「隋唐의 美術」, (東京: 平凡社), pp.143-148



〈그림 3〉 「大漢原陵秘葬經」의 明器配置圖

別로 特色있는 土偶가 製作되었으며 三國初期에 이르러 骨品과 平人 등의 階級區分에 의해 貴族文化가 形成되면서 高塚古墳時代에로 移行하여 典型的인 新羅土偶로 變遷하였다.<sup>11)</sup>

新羅地域에서 발견된 7世紀以前의 人物土偶들은 身體의 特定部分을 誇張 또는 省略하는 形態로 만들어져 新羅人의 生活感情을 짐작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도였다. 그러나 龍江洞古墳에서 出土된 人物土俑〈그림 11-13〉 28點과 本 研究에서 다룬 隍城洞古墳에서 出土된 人物土俑6點은 新羅地域에서 出土한 土偶의 即興的이고 次元을 넘어 얼굴표정, 冠帽, 服飾 등이 극히 寫實的으로 나타나 있어 新羅人의 참모습을 實感나게 傳達해 주고 있다. 隍城洞古墳出土 人物土俑의 服飾에 대해

本格的인 研究, 檢討는 되지 않았고 다만 몇가지 見解가 提起되었을 뿐이다.<sup>12)</sup>

한편 隍城洞古墳의 主人公에 대해서는 被葬者의 身分을 밝히는 墓誌石이 없어 正確한 年代는 밝힐 수 없으나 李熙濬은 “隍城洞古墳의 被葬者는 貴族階級일 것이며 古墳의 編年은 7世紀中葉으로 推定된다”고 했으며,<sup>13)</sup> 崔秉鉉은 “隍城洞古墳의 主人公은 貴族階級일 것이며 古墳의 編年과 出土遺物의 編年은 반드시 一致하지는 않는다. 古墳樣式만으로 볼때 隍城洞古墳은 7世紀初의 樣式이며 龍江洞古墳은 7世紀前半樣式으로 推定”하고 있다.<sup>14)</sup> 여기서 보면 古墳樣式上 隍城洞古墳은 龍江洞古墳보다 時期가 앞선 樣式이라는 것이 學者들의 共通된 見解이다.

學者들의 이와같은 共通된 見解와 人物土俑의 服飾樣式에 의하면 龍江洞古墳의 人物土俑들의 服飾과 隍城洞出土人物土俑의 服飾이 다른 樣式이므로 服飾樣式의 相互比較를 통해서도 兩古墳의 時代的인 差異를 推定할 수 있다. 우선 隍城洞古墳出土 人物土俑이 窄袖, 細身의 실루엣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龍江洞出土 人物像보다 時代的으로 앞선 樣式으로 보인다. 따라서 隍城洞古墳의 發掘은 新羅統一前·後의 服飾의 實物形狀을 提示할 수 있다는 점과 龍江洞出土 土俑服飾과 時代的인 變遷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服飾史的 意義는 크다고 하겠다. 더구나 隍城洞古墳出土의 土俑의 服飾樣式과 龍江洞古墳出土 土俑의 服飾樣式은 外來的 要素의 性格에서도 差異를 느낄 수 있어 當時의 對外關係의 深度를 把握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11) 李殷昌(1983), “新羅土俑에 나타난 民俗”, 「新羅民俗의 新研究」, 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論文集, 第4輯, (新羅文化宣揚會), p.192

12) 東亞日報(1987. 6. 12 日字), 崔夢龍은 “당시의 人物, 服飾史研究에 중요한 資料”라고 평가했고 경주박물관의 보고자료에 의하면 “女子像은 원피스 스타일의 옷에 주름까지 描寫되어 있고 男子像의 幪頭, 팔자수염 등에서 中國의 影響이 느껴진다”고 指摘하였다.

大邱每日新聞(1987. 6. 12 日字), 李蘭英은 “人物土俑은 灰色에 원피스 스타일의 치마가 발등까지 내려 온 傳統的 韓國女人과 老人, 武人像으로 龍江洞石室古墳에서 發掘된 彩色人物土俑과는 形態와 色彩가 다르다”고 했다.

李熙濬은 “女子像은 裙과 짧은 上衣를 입고 심한 偏頭이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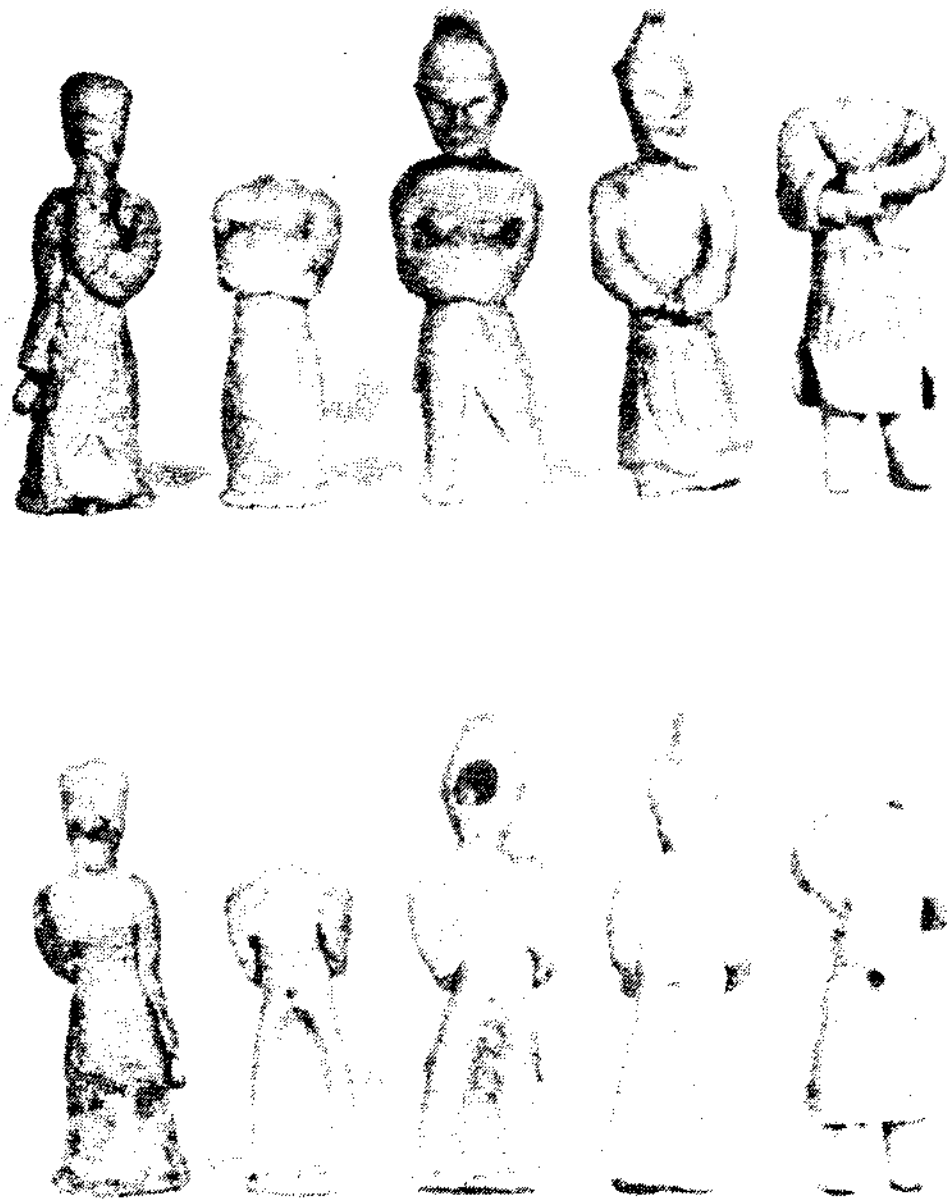
13) 李熙濬(1988), 未刊行 필자와 대화속에서 행하여짐.

14) 崔秉鉉(1988), 앞책, p.62.

### Ⅲ. 隍城洞古墳出土 土俑의 形狀

작품을 正確히 理解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表現形式, 즉 樣式에 注目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은 作家의 藝術的 氣質, 또는 그 美的 藝術的 生活感情이 具體的인 作品속에서 특히 그 表現形式 이라고하는 作品속에서 객관화, 구체화되어 나타나 는 그 作家의 표현형식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作家의 감정은 살아 있는 것이며 생활감정도 가장 적합한 표현수단에 의해 시대에 따라 변화하게 된다. 그러므로 각시대의 각각의 작품의 표현형식, 即, 樣式이 생기는 것이다. 이 樣式을 통해서 그 時代의 作家의 生活感情을 理解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本 단원에서는 本 研究의 中心資料인 隍城洞出土 人物土俑 6點에 나타난 土俑의 形狀을 叙述하기로 한다.



〈그림 4〉 隍城洞古墳出土人物像5點의 前·後面

#### 1. 男子像 I

굵은 콧수염(팔자눈썹)에 실눈, 무언가 말할 듯한 입, 小心한 表情을 하고 있는 이 像〈그림 5〉은 높이 18cm로 손을 앞으로 拱手하고 허리를 굽히고 머리를 약간 숙이고 있는 姿勢이다. 몸체에 비해 頭部의

비례가 크다.

冠帽는 幘頭로 巾子는 2段이고 方形이며 앞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後面에 무엇인가 붙었다가 떨어진 자국이 있어 後脚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後頭 中間에 커다란 구멍이 있다.

衣服은 여밈線이 보이지 않으나 幅이 좁은 袍로 보인다. 깃은 둥근 깃이며 길이가 바닥에 닿고 신발을 덮고 있다. 허리 位置보다 약간 내려 간 곳에서 帶를 매고 허리의 左·右 양쪽에 칼집 모양의 것을 덧붙이고 있다. 그 아래로 左·右 양쪽에 쇠기型的 線을 線刻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주름을 描寫한 것인지 옆트임을 描寫한 것인지 確實하지 않다. 裾에 橫線이 있어 欄으로 생각되며 소매는 筒袖이고 衣服全體에 굽고 가는 線이 陰刻되어 주름을 描寫하고 있다.



〈그림 5〉 隍城洞古墳出土 男子像(I)의 前·後面

#### 2. 男子像 II

이 像〈그림 6〉은 높이 17.8cm로 깊숙하고 치켜 올라 간 눈매와 큰 코, 다문 입 등의 얼굴모습으로 一見에 異國人처럼 느껴진다. 上述한 男子像 I 과 마찬가지로 굵은 콧수염(八字수염)을 기르고 콧수염 끝을 위로 치켜 올려 눈의 線과 平行을 이루고 있으며 顔面을 약간 옆으로 돌린 채 바로 치켜 세운 얼굴은 全體적으로 순한 印象이 아니고 날카로운 印象이다. 몸체에 비해 頭部의 비례가 크다.

冠帽의 形態는 男子像 I 의 形과는 달리 모자끝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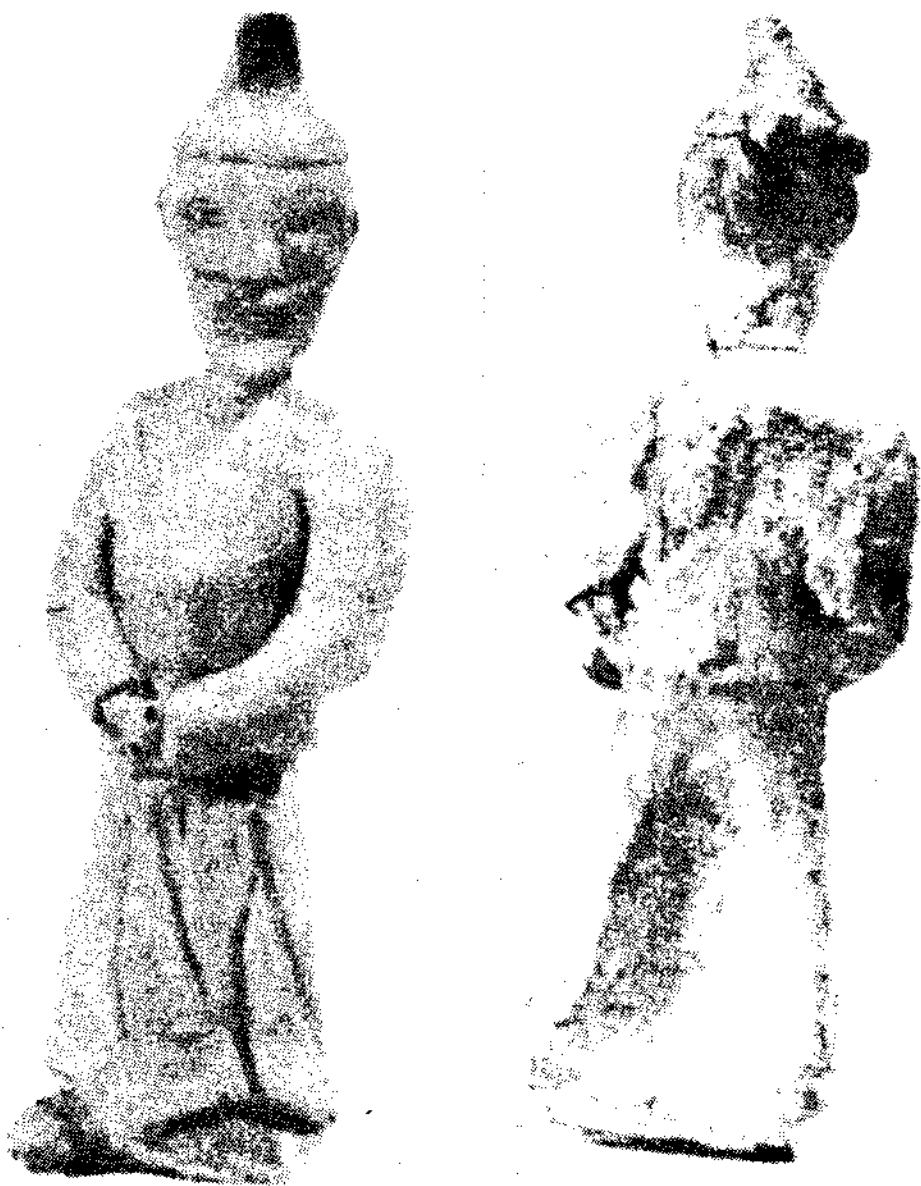


앞으로 기울어진 弁形을 이루고 左右가 破損되었으나 後面에 脚이 붙어 있다.

衣服은 窄袖의 幅이 좁고 깃이 둥근 袍로 보이며 허리 位置보다 약간 낮은 位置에 帶를 매고 있다. 길이는 발목길이며 신발과 속에 着用한 衣服이 보인다. 裳部分의 주름은 굵은 線으로 陰刻하고 있으며 옆트임의 表現도 이것과 같이 表現하고 있어 衣服의 全體的인 雰圍氣가 上述한 男子像 I 보다 活動的으로 느껴진다. 前述한 男子像 I 에서 보이는 欄이 없으며 신발을 크게 描寫한 것으로 보아 靴처럼 생각된다. 左·右의 손을 腹部에서 마주하고 무언가 잡고 있는 듯이 느껴진다. 소매길이는 左·右를 다르게 表現하고 있다. 왼쪽팔은 소매속에 손이 들어가서 보이지 않으나 오른쪽의 것은 소매길이가 팔목까지 오며 손이 보인다.



〈그림 7〉 隍城洞古墳出土 男子頭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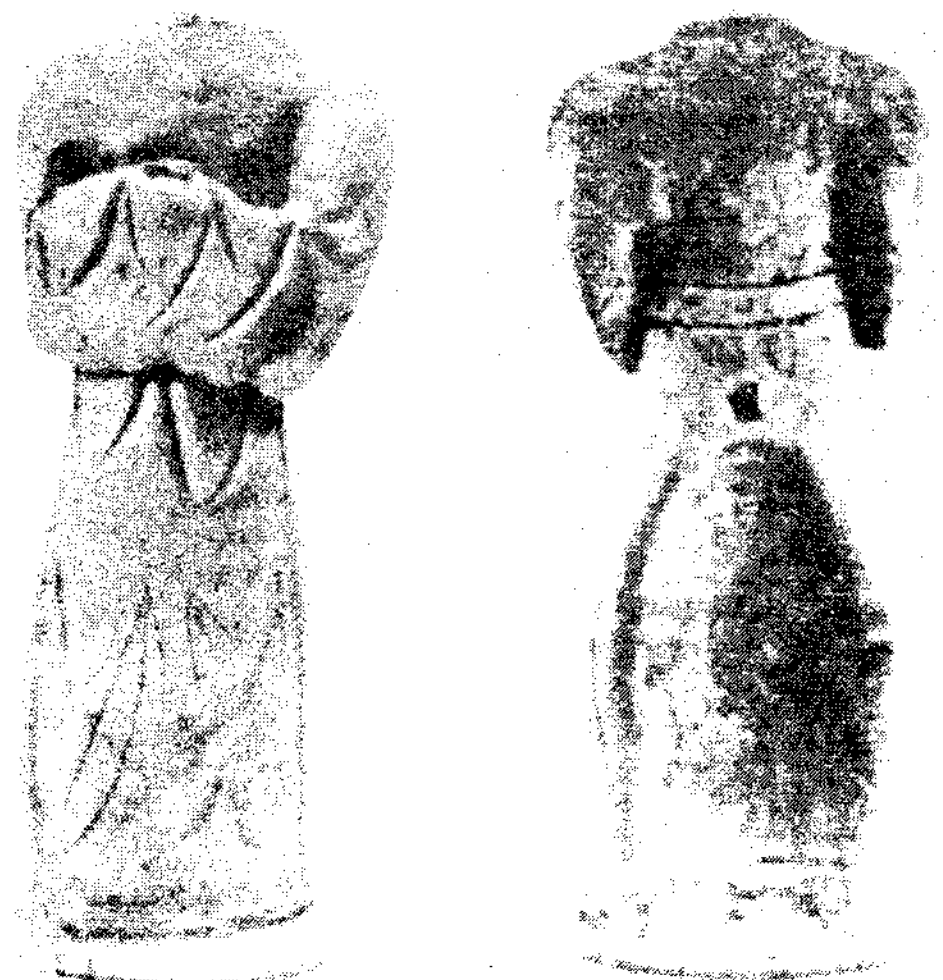
〈그림 6〉 隍城洞古墳出土 男子像(II)의 前·後面

### 3. 男子頭像

높이 5.0cm의 이 頭像〈그림 7〉은 머리에 帽頂이 떨어진 幘頭를 쓰고 가느다란 실눈과 뭉툭하고 큰 코, 작은 입, 가는 線의 陰刻으로 콧수염을 나타내고 있으며 表情이 침울하다. 幘頭는 앞의 男子像 I 과 비슷한 形態이나 後面에 脚이 있었던 흔적이 없다.

### 4. 胴體部 I

이 像〈그림 8〉은 높이 14.5cm로 頭部가 破損되어 冠帽 및 얼굴 모습을 알 수 없다. 衣服은 약간 廣袖의 袍로 깃은 둥글고 길이는 종아리까지 오며 허리에 굵은 帶를 띠고 있다. 앞에 엇갈리게 마주한 손에는 칼이라도 잡은 듯 팔에 힘이 느껴지는 모습이다. 옆트임을 彫刻으로 表示하고 그 속에 입은 衣服과 靴가 보인다. 廣袖의 한쪽 소매는 어깨까지 걸어올리고 있으며 속에 입은 폭 좁은 소매의 上衣가 보인다. 소매와 裳 部位에는 굵고 가는 線이 陰刻되어 주름을 나타내고 있으며 頭部가 없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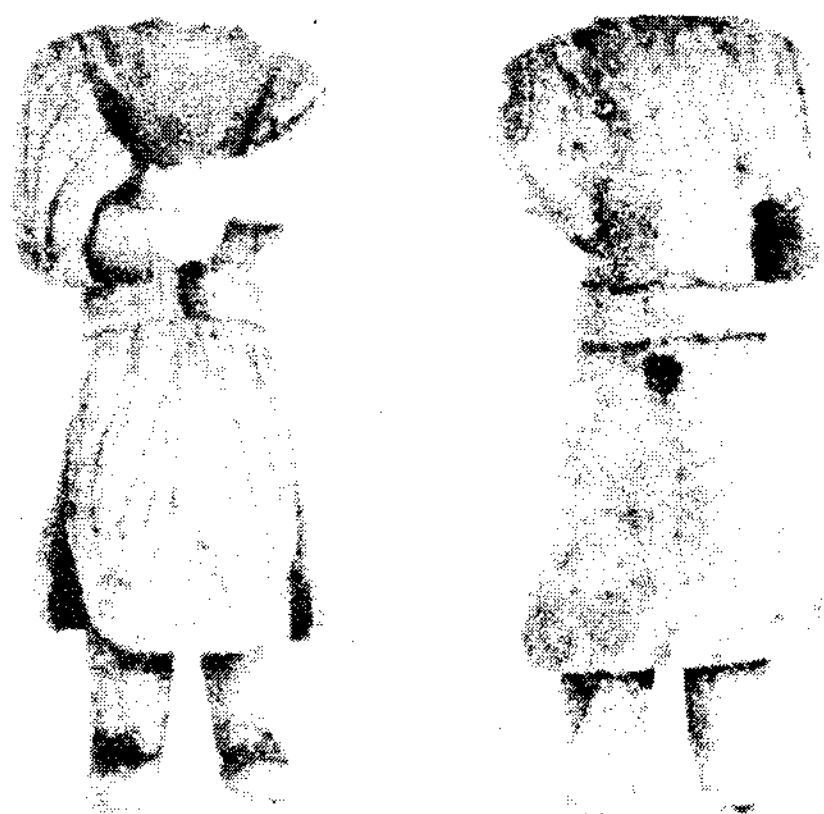


〈그림 8〉 隍城洞古墳出土 胴體部(I)의 前·後面

키와 衣服과 姿勢로 堂堂한 威風이 느껴지므로 武人像으로 생각된다.

### 5. 胴體部 II

높이 12.2cm의 이 像<그림 9>은 頭部가 없어 女子像인지 男子像인지 斷言하기 어렵다. 拱手의 姿勢에 笏을 들었을 것같은 구멍이 뚫려 있다. 後述할 女子像의 後面과 같이 帶線이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胴體部 I에서는 帶의 흔적이 立體的으로 나타나는데 비하여 이것은 女子像에서처럼 陰刻의 두 줄로 表示했다. 衣服의 形態는 鮮明하지는 않으나 목에 두 줄의 線이 둥근깃임을 나타내고 있고 바닥까지 오는 길이이며 가슴에 帶를 매고 있다. 裾에 全體 옷 길이의 10분의 1 程度의 좁은 橫線이 있는데 欄의 表現으로 보인다. 衣服全體에 굵은 線과 가는 線으로 陰刻되어 주름을 表現하고 있다. 남자상이라고 한다면 欄이 있는 袍를 입고 笏을 들었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여자상이라고 한다면 치마에 欄이 있으며 가슴에 帶를 맨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남자상인지 여자상인지 단언하기 어렵다.



<그림 9> 隍城洞古墳出土胴體部(II)의 前·後面

### 6. 女子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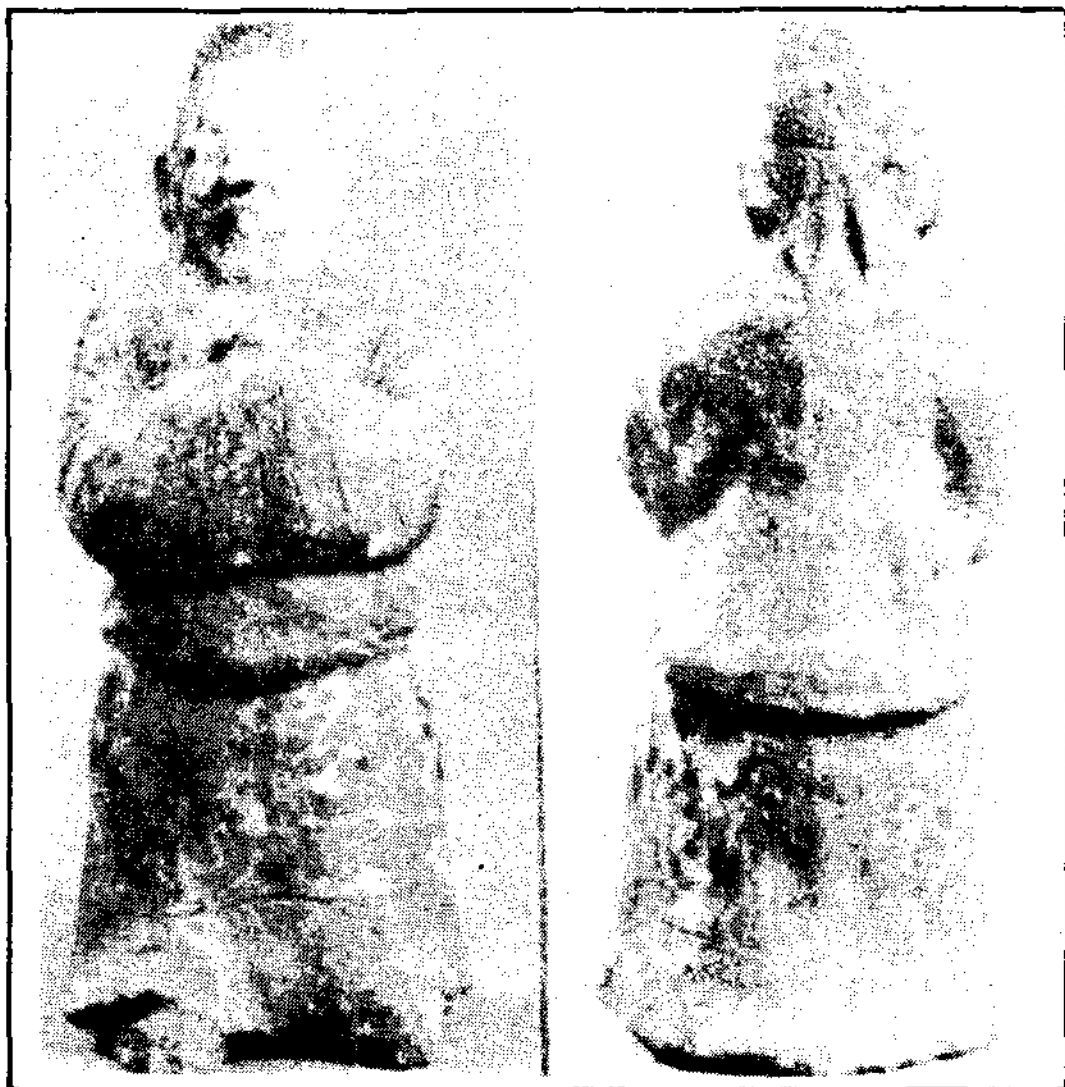
높이 16.5cm의 이 像<그림 10>은 한 손으로 입을 가리고 눈 웃음짓고 있는 表情이고 美態스런 霧圍氣가 感知된다. 머리 形態는 가리마를 정수리까지 타고 後頭 中間에서 묶어 오른쪽으로 비틀어 結髮하고 있다. 頭像은 정수리가 높고 方形이고 지극히 납작한 形態이다. 몸체에 비해 頭部의 비례가 크다.

衣服은 둥근 깃이고 가슴높이에 帶를 매고 있다. 衣服의 폭이 좁고 소매도 폭이 좁으나 衣服에 비해 넓으며 帶를 境界로 치마는 허리線을 나타내며 바닥까지 오는 鐘形의 裳이다. 左, 右의 腰部에서 裾를 향해 길게 쇄기꼴을 線刻으로 나타내고 있다. 신발은 裾에 가려 발등 部分만 보이는데 履의 코가 작고 狹窄하다. 가슴높이의 帶는 앞에서 매어 늘어 뜨린듯 裳의 앞 部分에 帶의 자락을 表現한 것으로 보이는 굵은 線이 陰刻되어 있다. 衣服全體에 굵고 가는 線이 陰刻되어 주름을 表示하고 있다.



<그림 10> 隍城洞古墳出土 女子像의 前·後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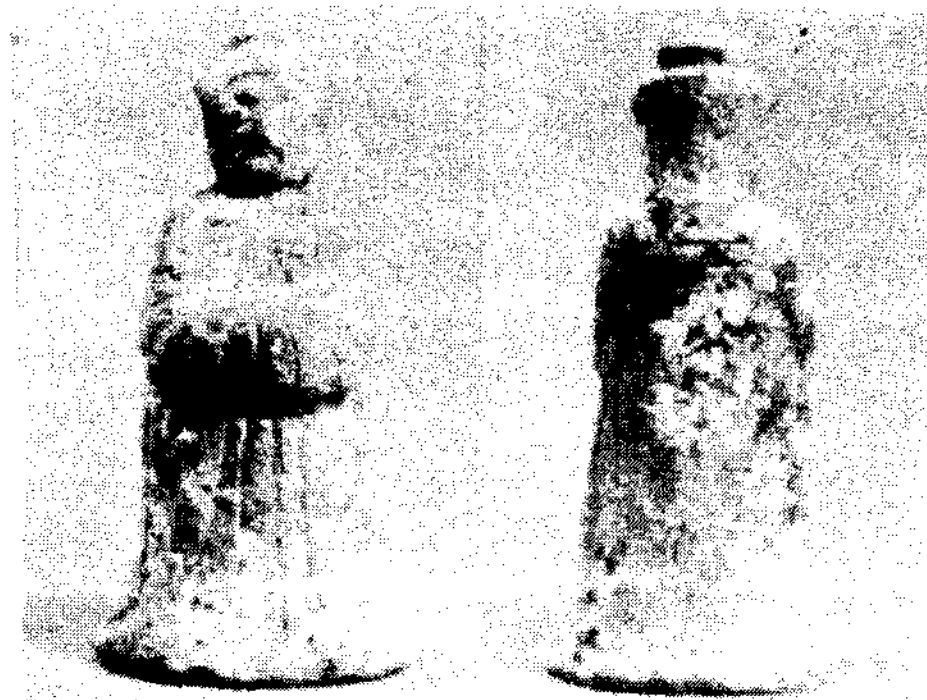
以上에서 隍城洞古墳發掘의 性格과 土俑의 形狀을 叙述하였다. 俑이란 殉葬이 廢止되면서 殉死代身으로 副葬된 人形이다. 이것은 新羅의 6世紀以後의 墓制인 石室墳에서 주로 發掘되며 俑에 나타난 服飾은 當時의 服飾의 實狀을 提供한다는 점에서 服飾史研究에 重大한 意味를 賦與하고 있다. 특히 本 研究의 中心資料인 隍城洞出土 人物土俑 6點은 龍江洞古墳出土 土俑의 服飾과 다른 樣式을 보이고 있어 新羅統一前·後의 服飾의 變遷을 理解하는데 있어 重要한 契機를 마련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11〉 龍江洞古墳出土 男子像의 前·後面



〈그림 12〉 龍江洞古墳出土 女子像(I)의 前·後面



〈그림 13〉 龍江洞古墳出土 女子像(II)의 前·後面

#### IV. 隍城洞古墳出土 土俑의 服飾史的 背景

##### 1. 新羅統一前·後의 外來要素의 受容

韓國古代史를 代表하는 新羅時代는 文化와 藝術을 꽃피운 時期일 뿐 아니라, 政治制度의 完備와 強力한 王權을 確立함으로써 韓國의 傳統社會의 原型이 만들어졌던 時代였다.

이러한 新羅社會의 興隆은 法興王代(514~540

年)와 眞興王代(540~576年)의 6世紀에 그 基盤을 마련하였다. 地理적으로 隔離되었던 新羅가 中國에 公式적으로 알려진 것은 柰勿王26年(381)이었으나 이때는 高句麗의 도움으로 人朝한 것이었고 法興王8年(521)까지 對中國交涉이 전혀 없었다.

그러므로 法興王8年의 入梁과 同王15年(528) 梁使臣의 來朝는 新羅의 國家的 存在가 中國에 공식적으로 認識된 것이었고 특히 眞興王25年(564)以後의 年例的인 朝貢關係의 成立은 新羅史에 劃期的인 變化를 뜻하는 것이다.<sup>15)</sup> 무엇보다도 眞興王은 梁·北齊·陳 등 여러나라에 10여 차례의 使臣을 보내고 있어<sup>16)</sup> 이와 같은 계속적인 交涉과 長期滯留에 따른 人的交流過程에서 中國의 文物을 受容하였으리라는 것은 確實하다. 그러나 이러한 中國文物의 受容過程에서 수반되는 中國服飾의 採用은 무조건的인 模倣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中國服飾의 受容, 變化, 自己化를 거쳐 再創造를 통해 나타나는 新羅的 要素가 主流가 되고 있음을 看過해서는 안될 것이다.

新羅의 對中國交涉은 6世紀末 隋의 登場과 더불어 더욱 활발해졌다. 三國은 각기 政治的 目的에서 競爭的인 接近을 꾀하였으며 使行의 種類가 多樣하여졌고 交易되는 文物도 豊富해졌다.<sup>17)</sup> 무엇보다도 당시 眞平王(579~632年)은 交通上의 어려움을 克服하면서 12回의 遣唐使를 派遣하여 積極的인 中國文物을 받아 들였으며,<sup>18)</sup> 位和府·調府·乘府·

15) 金海宗(1966), "韓中朝貢關係考", 「東洋史研究」1, p.11

16) 申滄植(1981), 「韓國古代史의 新研究」, (一潮閣), p.308

17) 앞책, p.313



〈표 2〉 法興王以後 新羅의 對中交涉

世紀	派遣回數	派遣國	使行의 類型
6	法興王 (2)	梁	朝貢, 求法
	眞興王 (10)	梁, 北齊, 陳	朝貢, 求法
7	眞平王 (22)	陳, 隨, 唐	朝貢, 求法, 請兵,
	善德女王 (12)	唐	朝貢, 求法, 請兵, 國學入學
	眞德女王 (12)	唐	朝貢, 請兵, 宿衛
	武烈王 (8)	唐	朝貢, 請兵, 宿衛, 戰勝報告
	文武王 (25)	唐	朝貢, 謝罪, 宿衛, 宿衛學生
	神文王 (2)	唐	朝貢, 文章要求
8	聖德王 (45)	唐, (日本)	朝貢, 賀正, 宿衛學生, 宿衛
	孝成王 (8)	唐	朝貢, 賀正, 宿衛, 宿衛學生
	景德王 (12)	唐, (日本)	朝貢, 賀正
	惠恭王 (12)	唐	朝貢, 謝恩
	宣德王 (2)	唐	朝貢
	元聖王 (2)	唐, (勃海)	朝貢
9	袁莊王 (5)	唐, (日本)	朝貢, 宿衛, 宿衛學生
	憲德王 (8)	唐, (勃海)	朝貢, 宿衛, 宿衛學生
	興德王 (12)	唐	朝貢, 謝衛, 茶傳來, 宿衛
	嬪康王 (2)	唐	朝貢, 宿衛
	文聖王 (4)	唐	朝貢, 宿衛
	景文王 (8)	唐, (日本)	朝貢, 宿衛, 宿衛學生
	憲康王 (2)	唐	朝貢, 宿衛
	眞聖女王 (2)	唐	朝貢, 宿衛

※ 宿衛: 在唐留學兼 人質의 性格을 띠

〈표 3〉 新羅의 遣唐使(648~668年)

人名	派遣年代	使行目的	唐의 官職	歸國後活動
郵 帙 許	眞德王 2年 (648)	朝 貢		
金 春 秋	眞德王 2年 (648)	請 兵	特 進	武 烈 王
金 法 敏	眞德王 4年 (650)	獻太平頌	大 府 卿	文 武 王
金 仁 問	眞德王 5年 (651)	宿 衛	左領軍衛將軍	軍 主
金 文 王	武烈王 3年 (656)	宿 衛	左武衛將軍	侍 中
天 福	武烈王 7年 (660)	戰勝報告		
汁 恒 世	文武王 7年 (667)	朝 貢		
元器 · 淵淨士	文武王 8年 (668)	朝 貢		

禮府·領客府 등 5官府를 設置하여 強力한 王權을 確立하였다.<sup>18)</sup>

「三國史記」에 나타난 6世紀以後 新羅의 對中國交涉回數를 圖解하면 〈표 2〉와 같다.

〈표 2〉에서 보듯이 新羅도 南北朝이래 積極的인 對中國交涉을 推進하다가 6世紀後葉 梁·陳을 거쳐

隋에 이르러서는 百濟, 高句麗의 競爭을 물리치면서 外交交涉을 主導하였다. 나아가서 唐과는 빈번한 使節, 求法僧(學問僧), 留學生(宿衛學生), 宿衛 등의 派遣이 계속되었다.

우선 兩國間의 公式的인 使節인 朝貢使(遣唐使)는 대개 中國皇帝나 新羅王의 交替時에 派遣되는

18) 申滢植(1981), 「三國史記研究」, (一潮閣), P.215

19) 李基白(1974), 「新羅政治社會史研究」, p.141

것이 原則이다. 그러나 그 使節의 地位나 活動에 따라 唐으로부터 官職(名譽職)을 받았으며 歸國時에 唐의 文物을 갖고 오게 된다. 「三國史記」에 나타난 統一前(668年)까지의 代表的인 遣唐使를 圖解하면 <표 3>과 같다.<sup>20)</sup>

다음으로 新羅의 對唐交涉에 빠질 수 없는 것이

求法僧의 活動이다. 覺德이 眞興王10年(549年)에 梁의 使臣과 함께 最初로 佛舍利를 가져온<sup>21)</sup> 以來 明觀·圓光·慈藏 등 高僧大德이 中國에 가서 求法 修學을 하고 돌아왔다. 新羅의 求法僧의 中國入朝年과 歸國年을 정리하면 <표 4>와 같다.<sup>22)</sup>

여기에서 볼때, 당시의 求法僧은 中國만이 아니

<표 4> 6~7世紀 求法僧

僧名	入中國年	~歸國年	出處
覺德	?	~眞興王10年(549)	海東高僧傳
明觀	?	~眞興王10年(549)	同上
玄光	入陳(557-588)	~?	宋高僧傳佛祖統記
地藏	陳後主代(583-588)	~唐土에서 入寂	宋高僧傳
智明	眞平王7年(585)	~眞平王24年(602)	海東高僧傳流通1의 2本傳및 史記4. 眞平王本紀
圓光	眞平王11年(589)	~眞平王22年(600)	海東高僧傳同上및 遺事 義解5 圓光西學條및 史記4. 眞平紀
曇育	眞平王18年(596)	~眞平王27年(605)	海東高僧傳 智明傳및 史記4. 眞平王本紀
安弘(安舍)	眞平王23年(601) 眞興王37年(576)	~眞平王42年(620) ~	海東高僧傳, 三國史記, 遺事
慧濟	?	~眞平王45年(623)	唐에서 日本으로
慧先	?	~同上	以上兩入, 元亨釋書및 日本의 本朝高僧傳
圓測	眞平王51年(629)	~唐土에서 入寂	玄奘文人, 宋高僧傳4, 遺事5. 圓光西學
圓安	?	~?	遺事5. 圓光西學
明郎	善德王元年(632)	~善德王4年(635)	遺事第6 明郎神印
慧隱	?	~善德王8年(639)	唐에서 日本으로 元亨釋書및 本朝高僧傳
圓勝	慈藏보다 앞서	入唐~善德12年(643)	遺事慈藏定律條및 續高僧傳 慈藏傳
慈藏	善德王5年(636)	~善德王12年(643)	遺事 塔像第四 前後所將舍利, 義解第5 慈藏定律및 史記5 新羅本紀 善德王條
僧實	善德王5年	~?	師 慈藏을 따라 同輩10餘人과 함께 入唐. 遺事5 慈藏定律
惠通	?	~文武王5年(665)	遺事 神呪第6 惠通降龍
義湘	文武王元年(661) 永術(650-655) 初	~文武王11年(671) ~文武王10年(670)	前說은 遺事義解第5 義湘傳教 後說은 同塔像第4 前後所將舍利
順璟	乾封中(666-667)	~?	史記및 宋高僧傳
阿離耶跋摩 慧(惠)業	?	~貞觀年中(627-649)	唐에서 西域으로 海東高僧傳및 遺事4 歸竺諸師. 大唐西域求法
玄恪			高僧傳 卷上
玄太(泰)	?	~永微中	唐에서 西域으로. 同上
慧(惠)輪	?	~文武王6年(666)	唐에서 西域으로. 同上
求本	?	~自唐入竺	遺事4 歸竺諸師

20) 申滢植(1981), 「三國史記研究」, p.238-249

21) 「海東高僧傳」, 卷2, 流通1의 2, 覺德傳, 附舶入梁爲救法之先鋒……此新羅入學之始  
「三國史記」新羅本紀 第4, 眞興王 10年條

權應永(1987), 「삼국시대 신라구법승의 활동과 역할」, 「청계사학」4, (서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pp.5

22) 高秉翊(1970), 「東亞交涉史」, (서울大出版部), pp.49-50

〈표 5〉 統一新羅의 宿衛

區分	姓名	任命年月日	任期	派遣시의 官等	最後의 官等	政治參與
統一前	金文王	眞德王 2年(648)	5年	[波珍准]	伊准	侍中·軍主 ·執權
	金仁問	眞德王 5年(651)	22年	波珍准	大角干	
	金三光	文武王 6年(666)	3年	大阿准	伊准	
中代	金德福	文武王 14年(674)	1年	[阿准]		大監  渤海討伐
	金守忠	聖德王 13年(714)	3年			
	金嗣宗	聖德王 27年(728)	2年			
	金志滿	聖德王 29年(730)	1年			
	金思蘭	聖德王 32年(733)	1年			
	金忠信	聖德王 32年(733)	1年			
	金志廉	聖德王 33年(734)	1年			
下代	金獻忠	哀莊王 7年(806)	1年		伊准	國相·軍主 侍中
	金士信	憲德王 1年(809)	1年			
	金昕	憲德王 17年(825)	1年			
	金義棕	興德王 11年(836)	1年			
	金忠信	僖康王 2年(837)	1年			
	金因	景文王 10年(870)	1年			

(註) [ ] 안에 것은 推定에 의함.

라 멀리 西域까지 왕래한 경우는 물론, 그곳 僧侶들과 交流가 있어 新羅社會에 影響을 주었을 것임은 물론이다. 특히 京師에는 西域人, 遊牧人들까지 몰려 있어 이곳을 통해 西域文化의 이해가 어느 정도 可能했으리라 본다.

다음으로 對唐交涉에 큰 役割을 한 階層은 宿衛이다. 이것은 “夫四夷稱臣納子爲質”이라는<sup>23)</sup> 表現과 같이 中國周邊의 群小國家의 王子들을 京師에 入侍(人質)하는 것으로, 대개 1~2年 程度 唐廷에 머물기 때문에 그곳에서 많은 人物과 交流가 可能하였다. 이들에 의해 신라에 새로운 문물이 들어왔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新羅의 宿衛를 整理하면 〈표 5〉와 같다.<sup>24)</sup>

끝으로 新羅의 對唐交涉에서 큰 役割을 한 人物은 渡唐留學生이다.<sup>25)</sup> 이것은 善德女王9年(640年)에 唐太宗의 國學振興政策의 一環으로 推進되어 新羅는 물론 高句麗, 百濟, 高昌, 吐蕃 등 여러나라

가 唐에 留學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實貢科合格者는 新羅가 中心이 되었으므로 실제 留學生은 新羅人이 압도적으로 많았다.<sup>26)</sup>

이와 같이 使節, 求法僧, 留學生들이 長期間 唐에 滯留하면서 그곳의 官吏나 貴族 및 西域人들과의 交流를 통하여 그들의 生活方式, 服飾 및 風俗까지를 傳來하였을 것이어서 新羅上流層의 衣冠制變化에 크게 影響을 주었을 것이다.

또한 中國으로부터 使臣과 文物을 보내 음에 따라 中國의 先進文物에 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西方으로부터 佛敎의 傳來와 더불어 西域文物에 접할 수 있게 되었다. 西域과의 交涉은 求法外에 特記할 記錄은 보이지 않으나 新羅 美術에 두드러진 西域風이 그것을 實證하고 있는 것이다. 服飾現象이 文獻上에 記錄되거나 社會制度로서 나타날 때는 이미 流行하고 있는 服飾現象일 경우가 허다하다. 文化의 傳播, 특히 服飾의 傳播는 文獻에 나타

23) 「冊有元龜」卷996, 外臣部

24) 申滢植(1987), “新羅의 宿衛外交”, 「古代韓中關係史研究」, (三知院), p.241

下麟錫(1966), “唐宿衛制度에서 본 羅唐關係”, 「史叢」11, p.53

25) 申滢植(1969), “宿衛學生考”, 「歷史教育」, 11, 12, p.71

李基東(1980), “新羅下代實貢及第者의 出現과 羅唐文人의 交換”, 「全海宗博士華甲論叢」

26) 李基東(1984), 「新羅骨品制社會와 花郎徒」, (서울: 一潮閣), p.290-291

〈표 6〉 新羅 17官階公服制度

官階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官等名	伊 伐 滄	伊 滄	沛 滄	波 珍 滄	大 阿 滄	阿 滄	一 吉 滄	沙 滄	級 伐 滄	大 奈 麻 組	奈 麻	大 舍 織	舍 知	吉 士	大 烏	小 烏	造 位
冠		錦 冠	冠	緋 冠	冠												
服		紫衣				緋衣			青衣		黃衣						
笏		牙				笏											

나기 以前부터 影響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2. 新羅服飾制度的 成立과 變遷

新羅는 6세기이후에 고대국가 체제를 갖추게 되었으며 그에 따라 제도의 整備, 分化가 수반되었다. 그러므로 관료제도의 정착에 따른 官服의 제정과 관리의 위계질서를 위한 公服制가 발달할 수 있었다. 法興王7年(521)의 율령공포는 바로 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서 신라고유의 公服制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음을 뒷받침한다 할 것이다.<sup>27)</sup> 「三國史記」色服條에 의하면 신라는 官階에 따라 四色으로 된 복색을 하고 있는 바 〈표 6〉과 같다.

〈표 6〉에서 보는 大阿滄以上은 眞骨만이 進出 가능한 것이며 眞骨이면서 大阿滄以上の 官階를 가진 者만이 紫衣를 입었고 眞骨이라도 官階가 阿滄以下이면 紫衣를 입을 수 없었다.<sup>28)</sup> 그러므로 眞骨이상이 紫衣를 착용한다는 既存연구에서 眞骨중에서도 大阿滄 이상만이 입을 수 있었다는 것을 삼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엄격하게 말해 服色은 身分 중에서도 官階만을 나타내는 象徴이기 때문이다.

法興王代의 牙笏은 級伐滄까지 들었으나 眞德王代의 牙笏은 眞骨로서 官階를 가진 者는 牙笏을

들도록 했다. 牙笏은 眞骨, 非眞骨의 身分이나 資格表示로 利用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牙笏은 法興王代부터 施行되었으나 眞德王代에 再次 施行하도록 命을 내린 것을 보면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는 事實과 함께 “새로운 政治變革이 試圖되었음을 뜻한다. 骨品制度的 整備, 即, 眞骨爲主의 整備를 꾀하고자 했던 것”이다.<sup>29)</sup>

이러한 신라의 고유관복제도는 6세기중엽이후 빈번히 對中交涉에 따라 또는 신분간의 권위의식이나 三國간의 교섭관계에서 외국의 服制를 수용하게 되면서 그 모습이나 특징을 바꾸게 되었을 것이다. 신라는 국초 이래 백제와의 빈번한 충돌을 거치면서 성장하였으며,<sup>30)</sup> 특히 5~6세기의 羅濟同盟은 양국간의 物물교류에 촉진제가 되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東城王15年 春正月 王遣使新羅請婚 羅王以伊滄比智女送之’<sup>31)</sup>와 같은 양국간의 婚事는 薯童說話<sup>32)</sup>와 함께 큰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양국정부간의 公式結婚行事에는 양측의 복식을 상호 비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신라의 국가적 성장에도 고구려의 영향은 제외될 수 없다. 즉 4세기 말 實聖과 卜好의 人質<sup>33)</sup>과 고구려군의 경주주둔<sup>34)</sup>은 신라사회의 여러 방면에 그 영향을 깊게 심어 줄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濟·麗의 영향은 과소평가될

27) 「三國史記」에 의하면 유리왕9年(32)에 이미 17官等を 정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것을 신빙한다면 당시 各階層(官等) 간에는 服飾, 裝飾의 차이는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28) 「三國史記」, 卷第33, 雜志第2

29) 신형식(1985), 앞책, 308

30) 신형식(1985), p.250

31) 「三國史記」卷25

32) 이병도(1976), “薯童說話에 대한 新考察”, 「韓國古代史研究」, pp.531-542

33) 신형식(1985), 앞책, p.320

34) 신형식(1979), “中原高句麗碑에 대한 一考察”, 「史學志」13, pp.75-77



수 없다해도 신라복식제의 변화에 결정적인 영향은 唐과의 빈번한 교섭이후가 될 것이다.

「三國史記」眞德女王二年(648年)에 ‘春秋又請改其章服, 以從中華制’, 同三年春正月 ‘始服中朝衣冠’, 同四年夏四月 ‘下教以眞骨在位者執牙笏’이라고 기록되고 있듯이 牙笏 및 中國衣冠을 受容하게 되었다. 金春秋도 太宗 武烈王이 된 뒤에 唐의 年號를 使用하고 官服制度를 唐制로 改革하여 唐化政策을 施行하였다. 文武王四年(664年) 正月에 婦人도 中國衣冠을 입도록 하였음은 물론 통일전쟁에서 보여진 羅·唐간의 긴밀한 접촉은 그후로 衣冠이 中國과 같게 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新羅服制가 어떠했던가는 「三國史記」에 直接 記錄하고 있지는 않으나 「高麗史」崔乘老傳에 의하면<sup>35)</sup> 公卿百僚庶人에 따라 衣服과 鞋襪의 색깔이 달랐으며 公卿百僚의 朝會는 公欄을 입고 穿執을 구비하고 朝退하면 便服한다. 庶人百姓은 文彩한 것을 입지 못하고 身分의 貴賤에 따라 尊婢를 가리는 鬲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唐 服制의 受容은 있었으나 完全히 唐制를 模倣한 것이 아니고 官服에서만 唐制를 採用하였을 것이며 官人도 歸家

時에는 便服인 韓國 固有의 直領交衽筒袖의 袍를 입었을 것으로 본다. 이렇게 新羅가 唐과 交流하게 되자 遣唐使를 통해 唐의 賜與가 있었고 이리하여 新羅의 官服制度는 表面的으로 변하여 갔을 것이나 평민에게는 전통적인 신라복제가 유지되었을 것이다.

「三國史記」의 記錄에서 眞德王以後 唐으로부터 賜與服制를 보면 <표 7>과 같다.

<표 7>에서 보면, 錦袍, 紫衣, 紫羅繡袍는 唐에서 新羅王, 卿에 賜與한 것이고 王妃에게는 押金線繡羅裙衣를 내렸다. 帶는 金帶, 錦細帶 등이고 使臣에게는 地位의 高下에 따라 緋袍, 綠袍銀帶를 내리고 있다. 특히 聖德王 때 緋欄袍를 사신에게 내린 것으로 보아 衣가 있었음이 기록에서 증명되며 용강동고분출토 인물토용에서도 欄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7>에 보이는 唐으로부터의 사여복식의 내용은 신라말기까지 착용되었던 듯 흥덕왕대에 공포된 복식제도에서도 기록되고 있다. 여기서 흥덕왕복식제도의 내용을 황성동출토 인물토용의 복식과 관련된 부분만 살펴 보기로 한다.

<표 7> 眞德王三年(649年)以後 唐朝의 賜與服飾

新羅年代	紀元	對象	賜與服飾의 內容
文武王 5年	665	王	紫衣一襲 腰帶一條 彩繡羅一百匹 二百匹
聖德王 23年	724	卿	錦袍金帶 綵素共二千匹
29年	730	大使	紫袍錦細帶 綵一百匹
30年	731	卿	繡各五百匹 絹二千五百匹
32年	733	王	紫羅繡袍 金銀細器物 瑞紋錦五色羅 綵共三百餘段
33年	734	使臣	緋·袍 平慢銀帶 絹六十四匹
景德王 2年	743	王弟	錄袍銀帶
元聖王 2年	786	王	羅錦綾綵30匹 衣一副
"	"	王妃	錦綵綾羅 20匹 押金線繡羅·衣一副
"	"	大宰相	衣一副
"	"	小宰相	衣一副
景文王 5年	865	王	錦綵五百匹 衣二副 金銀器七事
"	"	王妃	錦綵 50匹 衣一副 銀器二事
"	"	王太子	錦綵 40匹 衣一副 銀器一事
"	"	大宰相	錦綵 30匹 衣一副 銀器一事
"	"	小宰相	錦綵 20匹 衣一副 銀器一事

35) 「高句麗」96, 崔乘老傳

新羅之時公卿百僚庶人衣服鞋襪名有品色公卿百僚朝會則者公欄具穿執朝退則逐便服之庶人百姓不得服文彩所以別貴賤尊卑也由是公欄雖非土產百僚自足用之…….

흥덕왕복제에는 골품에서 평인에 이르기까지 身分의 貴賤없이 幘頭 一色이 되어 우리의 衣冠中에서 幘, 折風, 蘇骨, 鳥羽冠 등의 冠帽가 사라졌음을 알 수 있다. 38代 元聖王과 48代 景文王의 귀와 幘頭に 관련된 一話로 미루어 王도 幘頭를 着用했음을 알 수 있고,<sup>36)</sup> 龍江洞古墳出土의 人物土俑에도 幘頭<그림 11>를 着用하고 있고, 隍城洞出土 人物土俑도 幘頭의 모습이다. 용강동출토 남자상에 복두의 후수가 늘어진 것으로 보아 唐初期의 복두형태라고 생각된다. 황성동고분출토 남자상 I, 남자두상의 복두는 후수는 보이지 않으나 용강동출토 인물토용의 복두형태와 유사하다. 황성동출토 남자상 II<그림 6>의 관모는 뒤에 후각이 붙어 있는 변형복두로 경주 단석산 신선사의 공양인물상, 순흥어숙묘벽화의 남자인물상에 보이는 변형모와 같은 계통으로 보인다.

흥덕왕 복제에는 表의, 內衣, 단의의 명칭이 보이는데, 이중 表衣는 新羅時代의 外衣이고 內衣, 短衣는 上衣라고 사료된다. 表衣는 袍로 袍는 「釋名」에 남·여가 입는 발목까지 오는 긴 옷이며 上, 下衣가 붙어 있는 의복이라고 있다.<sup>37)</sup> 이 포는 흥덕왕복제가 唐風을 보이므로 중국의 포의 형태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內衣와 短衣에 있어서 '短衣'와 '內衣'는 그 用途가 襦와 같다고 생각되나 이 두가지가 모두 固有樣式의 襦인지, 또는 그중 어느 하나가 固有樣式의 것인지 그 具體的인 形態에 대해서는 斷言하기 어렵다.

그런데 興德王服制에서 內衣에 六頭品女의 刷繡 錦野草羅를 禁하고 있으므로 아무리 奢侈가 盛行했던 당시라도 刷繡錦같은 두께가 있는 織物을 속옷에 使用했을 것 같지는 않으므로 內衣가 속옷(襯衣)이 아님을 推定할 수 있으며 '內衣'란 말이 表衣에 대한 것이고 실제로는 袴·裳에 相應하는 上衣, 即 襦라고 보아야 할 것 같다. 따라서 襦襜과 短衣가 一組가 되어 襦襜이 中國制의 것이라면 短衣는

우리 固有의 襦는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龍江洞出土 男子像<그림 11>은 有欄의 盤領袍를 입고 있으며 隍城洞出土 土俑의 男子服飾은 盤領에 窄袖, 細身의 袍를 입고 있다. 황성동출토 남자상 I<그림 5>에 보이는 횡선이 欄이라면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밝혀진 有欄衣의 上限이 될 것이다.

흥덕왕복제에서는 髮형을 언급하고 있지 않으나 髮형또한 시대양식을 파악하는 실마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황성동출토 여자상의 髮형은 앞가리마를 타서 뒤로 빗어 넘겨 후두 중간에서 髻를 한 우리나라 고유의 복제(쪽진머리)인데 비해 용강동출토 여자상은 高髻를 하고 있어 복식을 통하여 양고분의 시대적인 추이와 중국문물의 수용도를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용강동출토 女子像<그림 12>은 短上衣 위에 長裙을 입고 가슴위에 帶를 매고 裵를 두르고 있다. 隍城洞出土 女子像은 盤領의 短上衣에 가슴까지 오는 長裙을 着用하고 있으나 表는 착용하고 있지 않다.

裵는 興德王服飾制度에 의하여 眞骨女에서 四頭品女에 이르기까지 女子들만이 着用한 것으로 나타난 一種의 솔로서 唐代女性들 사이에 受容되었던 披帛에 해당되는데 日本에서도 比禮 혹은 領巾이라 하여 유행되었다.<sup>38)</sup> 龍江洞出土 人物土俑의 女子像<그림 12>은 裵를 두르고 있는데 土俑은 素材가 흙이므로 裵의 紋樣과 材質感을 알 수는 없으나 中國을 비롯한 西域 등에서 裵는 얇은 羅 등의 얇은 織物로 만들고 寶相華文 등 文樣이 있는 것도 있고,<sup>39)</sup> 日本의 正倉院 寶物에 紵縵羅로 만들어진 領巾의 斷片이 남아 있으므로<sup>40)</sup> 新羅의 裵도 羅 등으로 만들어 졌을 가능성이 짙다.

興德王服制에는 帶의 種類로 男子의 腰帶와 女子의 帶, 腰褌 등이 나타나 있는데 男子의 腰帶는 研文白玉, 鎡, 鐵, 銅 등이 사용되었으므로 鎡帶로 생각되며 女子의 帶는 六頭品, 五頭品에 金銀絲·

36) 「三國遺事」, 卷第2紀異, 第2景文王條

37) 「釋名」 袍丈夫著, 下至附者也, 袍苞也苞內衣也 婦人以降作衣裳上下連四起施緣亦曰袍義亦然也

原田淑人(1970), 「當代の服飾」, (東京: 東洋文庫), p.82.

38) 關根眞降(1974), 「奈良朝服飾の研究」, 本文編, (東京: 吉川弘文館刊行), pp.171-172

原田淑人(1970), 앞책, pp.102-103

39) 關根眞降(1974), 앞책, 172-174

40) 앞책, 圖版編, pp.64

孔雀尾 등으로 組하는것을 禁하였고, 平人女에 綾絹을 사용하게 한 점으로 보아 布帛帶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龍江洞出土 人物土俑의 男子像에 鎧帶가 보이며 女子像의 가슴에 帶를 매어 앞으로 늘어뜨린 것으로 보아 布帛帶이었다고 생각된다. 황성동출토 남자상의 대는 과대로 생각되며 여자상은 길게 휘날리며 늘어진 자락의 표현으로 보아 포백대였을 것이다.

腰褌에 대해서는 그 形態를 더욱 推測하기 어려운데 「普書」五行誌에 '秦始初衣服上偏下豐 著衣者皆 壓腰'라 있고 褌은 集韻에 '衣系曰褌'이라 있으므로 요반은 의복의 허리를 묶는 帶라고 생각된다. 요반은 흥덕왕복제에서 表裳 다음에 기술되고 있고 흥덕왕복제의 기술상으로 볼때 일반적으로 裳과 독립된 허리대라고 하기보다 裳에 관련된 것으로 생각된다. 더욱 황성동, 용강동출토 토용의 여자복식은 오늘날과 같이 치마위에 저고리를 착용하지 않고 저고리 위에 치마를 착용하는 착장방식이므로 요반은 의복미를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이었을 것이며 따라서 사치스러웠을 것이므로 六頭品女에 계수, 오두품여에 계수금라를 금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황성동, 龍江洞出土 女子像의 裙에 連結된 오늘날의 치마허리와 같은 것을 요반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추측되나 확실한 것은 알 수 없다. 용강동출토의 여자상에는 군에 연결된 어깨끈이 보이는데 이것을 무엇이라 했는지 알 수 없으나 이러한 實例는 中國의 實物에서도 흔히 보인다.

이상에서 신라는 법흥왕7년(521), 고유의 사색공복제도를 제정하였다. 興德王3年(649)에 唐의 服制를 받아들인 以來, 160餘年 지난 후에 내려진 興德王 服飾制度(834年)에 幘頭, 半臂, 襜褕, 袿, 笏 등의 唐制服飾이 나타나고 있어 新羅 眞德王으로부터 興德王間에는 服飾의 唐風化가 進行되었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

龍江洞出土 人物土俑의 幘頭, 盤領袍, 袿, 笏 등의 服飾에서 외래요소를 확인할 수 있으며 陰城洞古墳出土 人物土俑에서도 외래요소가 확인되므로 新羅 服飾에서 外國的 要素의 受容은 기록을 뒷받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服飾은 上流層에서 주로 着用되었을 것이고 一般百姓들은 新羅고유의 북방계 복식인 襦·袴, 襦·裳, 또는 고유의 袍를 착용했을 것으로 본다.

## V. 結 論

황성동고분의 주인공과 제작년대는 출토품의 성격과 고분의 양식으로 미루어 귀족층으로 생각되며 제작년대는 7세기초로 추정된다.

황성동출토 남자상 I 은 복두, 반령포, 대를 착용하고 있으며 문인상으로 보인다. 남자두상은 복두를 쓰고 있다. 남자상 II 의 관모는 후각이 붙어 있는 변형 복두, 반령포를 착용하고 있으며 서역인인 듯한 얼굴 모습이다. 동체부 I 은 남자상인지 여자상인지 단언하기 어렵다. 동체부 II 는 袴·襦 위에 종아리길이의 반령포를 입고 넓은 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무인상으로 생각된다. 여자상은 책수단의 위에 장군을 입고 있으며 발형은 우리고유의 북계를 하고 있다.

이상에서 황성동출토 인물토용의 복식은 당풍화의 경향을 엿볼 수 있으며 이것은 당시 신라의 사절, 구법승, 숙위, 유학생 등이 장기간 唐에 체류후 귀국한 사실이나 중국으로부터 사신과 문물을 보내오며 따라 그곳의 생활방식이나 복식, 풍속 등이 전래되었음이 문헌을 통해서도 뒷받침되고 있다. 특히 황성동출토 여자상은 책수, 세신, 북계의 모습이고 용강동출토 여자상은 광수, 풍만한 신체, 고계를 하고 있으므로 복식양식으로도 양고분의 시대적인 변천과 중국문물의 수용도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황성동출토 인물토용은 복식사적 의미가 지대한 것이다.

## 참 고 문 헌

- 「高麗史」, (東京: 武木印刷所)
- 「三國史記」, (서울: 明文堂)
- 「三國遺事」, (서울: 乙酉文化社)
- 「三國志」, (서울: 景仁文化社)
- 「釋名」, (臺北: 商務印書館)
- 「冊有元龜」, (台北: 中華書局)
- 「大唐求法西域高僧傳」
- 「宋高僧傳」
- 「海東高僧傳」
- 高柄翊(1970), 「東亞交涉史의 研究」, (서울大出版部)
- 權慈永(1987), 「삼국시대 신라구법승의 활동과 역할」, 「청계사학」4, (서울: 정신문화연구원)
- \_\_\_\_\_ (1986), 「團領의 發生」, 「服飾」第10號, 韓國服飾學

- 會  
 \_\_\_\_\_(1987), “慶州 龍江洞古墳出土 陶俑의 服飾史的 意味”, 韓國服飾學會 第9次 春季學術發表會, (韓國服飾學會)
- 金元龍(1973), 「韓國考古學概論」, (서울: 一志社)
- 邊太燮(1958), “韓國古代的 來世思想과 祖上崇拜信仰”, 「歷史教育」3
- 下麟錫(1966), “唐宿衛制度에서 본 羅唐關係”, 「史叢」11
- 申滢植(1969), “宿衛學生考”, 「歷史學報」, 11, 12
- \_\_\_\_\_ (1979), “中原高句麗碑에 대한 一考察”, 「史學志」, 13
- \_\_\_\_\_ (1981), 「三國史記研究」, (서울: 一潮閣)
- \_\_\_\_\_ (1985), 「韓國古代史의 新研究」, (서울: 一潮閣)
- \_\_\_\_\_ (1987), 「新羅의 宿衛外交」, 「古代韓中關係史研究」, (三知院)
- 劉松玉(1982), “高句麗古墳壁畫에 나타난 服飾”, 「韓國의 服飾」, (서울: 韓國文化財保護協會)
- 柳喜卿(1975), 「韓國服飾史研究」, (서울: 梨花女子大學校 出版部)
- 尹武炳(1981), 「정림사지발굴보고서」, (충남대학교박물관)
- 李京子(1983), 「韓國服飾史論」, (서울: 一志社)
- 李基東(1980), “新羅下代寶貢及第科의 出現과 羅唐文人의 交歡”, 「全海宗博士華甲論叢」
- \_\_\_\_\_ (1984), 「新羅骨品制社會와 花郎徒」, (서울: 一潮閣)
- 李基白(1974), 「新羅政治社會史研究」, (서울: 一潮社)
- 李蘭英(1976), 「新羅의 土偶」, (世宗大學紀念事業會)
- 慶州博物館(1988), 「隍城洞古墳發掘約報告書」
- 李文基(1988), “6世紀 新羅「大王」의 成立과 그 國際的契機”, 「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論文集」, 第9輯, (경주: 新羅文化宣揚會刊)
- 李明植(1986), “榮豐邑內里古墳壁畫”, 「新羅文化祭發表會論文集」, 第7輯, (慶州: 新羅文化宣揚會)
- 이병도(1976), “薯童說話에 대한 新考察”, 「韓國古代史研究」
- 李如星(1947), 「朝鮮服飾考」, (서울: 白楊堂)
- 李殷昌(1983), “新羅土偶에 나타난 民俗”, 「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論文集」 第4集, (慶州: 新羅文化宣揚會)
- 李弘植(1971), 「韓國古代史의 研究」, (서울: 乙酉文化社)
- 全海宗(1966), “韓中朝貢關係考”, 「東洋史研究」1
- 趙由典·申昌秀(1986), “慶州龍江洞古墳發掘調查概報”
- 崔秉鉉(1988), “新羅石室古墳의 編年研究”, 「崇實史學」

第5輯, (崇實大學校史學)

高橋健自(1927), 「日本服飾史論」, (東京: 大鐙閣)

關根眞降(1974), 「宗良朝服飾の研究」本文·圖錄編, (東京: 吉川弘文館)

宮川寅雄(1981), 「中國の三彩陶磁」, (東京: 大日本繪畫)

大阪市立美術館(編)(1978), 「隋唐の美術」, (東京: 平凡社)

小林太市榔(1947), 「漢唐古俗と明器土偶」, (東京: 一條書房)

原田淑人(1970), 「唐代の服飾」, (東京: 東洋文庫)

## ABSTRACT

### A STUDY ON THE COSTUME REPRESENTED IN CLAY FIGURES HWANGSUNG-DONG BURIAL TOMB.

Koo In-Sook

Dept. of HomeEconomics & Educatio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In May 1987, 11 clay icons and other stone products were excavated in an abandoned ancient tomb which was located in 541-1 Hwangsung-dong, Kyungju. 6 clay figures of them were depicted realistically man's features and postures, costume at that time that they gave a lot of significance to the fields of Korean Costume's Academic Society.

The main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study the background of costume history when it was made and its formal characteristics with the study of those 6 clay figures.

Shilla accepted the customs and attires of Sui and T'ang by means of frequent in coming and out going Chinese envoy as well as Shilla's envoy, monks, hostages, and students in China. From that period, the diversity of Shilla's costume began to develop by introducing T'ang's style into Shilla's costume.



Crested hat of men's clothing of the clay figures in Hwangsung-Dong is Bokdu Men's figure II wore Bokdu which Hugak is attached to Byunhyung. The garment is a Po and it is a tight sleeve and silhouette's Banryungpo.

The horizontal line of hemline of men's figure 1 can be presumed by expression of Ran though it is not as accurate as the clay figures in Yonggang-Dong. As for torso part 1, it can not be known the style of the crested hat because the head part was damaged, but it were shoes, belt and common sleeve, Banryungpo on tight sleeve shirt and tight trouser.

The hair style of the women's clothing in Hwangsung-dong clay figure is Bukkye peculiar to Korea. The costume was slim silhouette that people wore tight sleeve and short blouse and long skirt and belted on their bosom which dresses style

was in vogue from late Sui dynasty to the early years of the T'ang period. The silhouette of slim silhouette's high waist which can be seen in the women's dresses is mainly worn by Chinese and affected Shilla's costume. Therefore the dresses style of the clay figures in Hwangsung-Dong, it is considered it is a dresses style of tight sleeves and slim silhouette together with the adaptation and abolition of foreign elements on the basis of Shilla's own elements like Bukkye hair style and tight sleeve and silhouette.

The style of Yonggang-Dong's clay figures expresses spherical gei and common sleeve, loose silhouette of flourishing T'ang's costumes plainly whereas the style of Hwangsung-Dong's clay costumes expresses refined spirit of the Shilla(Shillaism) though it is extremely simple.